

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	보도자료	2025. 7. 14.(화) 배포 즉시 보도 가능		
농업기술원		기술지원조정과장	송효선	☎ 760-7510
		업무담당자	이석준	☎ 760-7552
		홍보담당자	양지순	☎ 760-7514

농업기술원, 폭염에 따른 농작물 관리 철저 당부

- 차광시설 활용, 관수시설 점검 등으로 농작물 고온 피해 예방 -

-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(원장 김태균)은 올여름 폭염과 열대야가 잦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심한 농작물 관리와 안전한 영농활동을 당부했다.
-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℃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, 열대야주의보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기간 중 밤 최저기온이 27℃ 이상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.
- 지난해 제주지역은 기상관측 이래 가장 더웠고, 강수량은 역대 두 번째로 적은 여름을 기록했다. 올해 역시 폭염과 열대야 발생 빈도가 평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고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이 중요하다.
-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면 과수는 비대와 착색이 불량해지고, 수분 변화로 인한 열매 터짐(열과)과 햇별 데임(일소과)이 발생할 수 있다. 콩과작물은 개화와 수정이 원활하지 않아 꼬투리 맺힘이 불량하고, 피해가 심할 경우 고사로 이어질 수 있다.
- * 콩과작물은 개화·수정기 기온이 35℃ 이상일 경우 콩알 생성이 억제됨
-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농업용수를 사전에 확보하고 관수시설을 점검하는 한편, 시설하우스에서는 차광시설을 활용해 내부 온도를 낮춰야 한다.

- 밭작물은 스프링클러를 이용해 적기에 관수하고, 짚이나 풀 등으로 작물 뿌리 주변을 덮어 토양 수분 증발과 지온 상승을 억제해야 한다. 과실에서 햇볕 데임 피해가 우려될 경우 봉지 씌우기를 통해 예방할 수 있다.
- 시설하우스는 낮 시간(오전 11시~오후 4시) 동안 30% 차광막 또는 보온커튼을 피복해 직사광선을 차단하고, 차광시설이 없는 하우스는 지붕에 차광제를 도포해 준다.
- 특히 폭염기에는 관수나 농약 살포에 사용한 호스 내부의 물이 고온에 의해 뜨겁게 달궈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.
- 호스에 남아 있던 뜨거운 물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농작물에 열상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, 사용 전 충분히 물을 흘려보낸 뒤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.
- 이석준 농촌지도사는 “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무더운 여름이 예상되는 만큼, 농업용수 확보와 차광막 활용 등 농작물 피해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바란다”며 “농작업 시에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, 나홀로 작업을 피하는 등 폭염 시 행동요령을 준수해 안전한 영농활동을 이어가시길 당부드린다”고 말했다.